

주일에배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0월 24일 (제1120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내 마음

이 기쁨을 누가 알랴!
 계속된 가뭄 속 잠 못 이루며 속 타던 농부
 탄비 온다는 기쁨 소식에
 잠자리 박차고 농터로 달려가며 소리~ 소리~ 치누나
 비가 온다네~ 비가 온다네~
 춤추는 농부의 심정을 누가 알랴!
 드디어! 대면예배라~
 이 기쁨 소식에,
 먼 여행 떠났던 내 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잠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 옷매무새 만지며
 콧노래에 웃음 짓는 이내 심정 누가 알랴!
 콩티는 마음속 웃음진 눈물이 멈출 줄 모르며
 눈꺼풀마저 웃어대니 손마저 떨리누나
 어떻게 손을 잡을까~ 어떻게 볼을 비빌까~
 감출 수 없는 희열의 얼굴이
 앵두가 익어가며 얼굴을 붉히는 소녀 모습처럼 아름답구나
 감동~ 감동을 견잡을 수 없어 외치누나 외치누나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내 주를 찬양 찬양하누나
 시골길 짐 실은 암소는 왜 이리도 머리 흔들며
 웃음진 눈망을 콧노래 소리에
 비포장도 달구지소리에 화음을 맞추누나
 이 아름다움 그 누군들 상상하라
 아름다움의 극치라
 산천초목 바람과 실개천 물소리 노래하니
 천상천하 오케스트라 연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 주님을 성도와 함께 맞이하리라

2021. 10. 16 새벽에 봉우 이초석 목사

봉 우 컬 럼

내게 주신 권세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고, 내가 땅을 축복하면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사업터를 축복하면 수출의 문이 열리고, 내가 죄를 사하면 죄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남들은 37년간 그래왔으니 무덤덤하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나는 귀신이 떠날 때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놀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목회 초기에 한 꿈을 꾸었다. 내가 시들 시들한 채소 위에 손을 내미니 채소들이 살아나 싱싱해졌고, 내가 사람들의 머리를 향하여 용접봉을 대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축 쳐져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꿈이었다. 당시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으나 점차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전국과 전 세계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 세례를 주니 영혼이 푸릇푸릇 살아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병들고 상한 육체가

살아난다는 꿈임을.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임을(빌4:13).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마10:14). 생사여탈권 역시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어느 장로가 하는 일에 축복해주시면 나중에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나는 그를 흔들어 놀려 축복했고 그의 사업은 불일 듯 일어났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던가. 그가 베드로 앞에서 야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하듯 안면 몰수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 말씀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고 나왔다. 그가 어찌 되었을까! 나는 이 말씀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 후로는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께 어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지 못할까. 장관 자리 하나만 쥐도 읊조리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됨을, 예수의 행복한 노예가 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0:23~24)

우리, 사명에 부도내지 말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이는 사명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명(使命)이란 부릴 사(使), 목숨 명(命)으로, 부리는 주군에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사명자는 주군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의식이나 사명의식이나

여러분,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암행어사를 지명할 때 아무나 택합니까? 하나님도 사명자가 되는 총족조건을 제시하셨고, 이에 맞는 자가 사명자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모, 형제, 심지어는 처자까지 뒤로 하고 주군을 따를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3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뱀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찢도 아직 떼지 못한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번제물이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뱀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심정이 될 때 비로소 사명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잠깐 가족과 인사를 나누겠다고 예수님께 고하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눅9:62)고 매몰차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에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9:60)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주의 종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처자는 물론 친구까지 뒤로 했습니다. 어머니 환갑날에도 부흥회에 가야 했으니 장남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만 조금도 갈등하지 않은 저는 이미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라고 의무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19:29)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완수하면, 사명을 잘 이행하면 사명을 위해 네가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사명자가 되려면 내 뜻을 접고 주군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든 형편이나 어려운 환경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지식, 내 뜻, 내 경험, 내 주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14:36).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원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행16:9)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뜻을 접고 유럽을 복음화 했습니다. 저 역시 비행기만 봐도 멀미가 나지만, 그래도 좋은 종일뿐, 좋은 의지가 없기에 지구 반대편을 넘나들며 선교에 매진해왔습니다.

목사 임직을 할 때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저를 대답하였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합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도 찬송합니다. 그런데 막상 적박한 곳으로 발령을 내면, 아니 서울만 조금만 벗어나도 ‘기도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는 이미 탈락입니다. 종 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갔습니다. 제가 늘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제 뜻과 생각을 일찌감치 기도원 가묘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무슨 자기 주관과 뜻이 있습니까? 분부하신 대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넘기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도 하늘과 복과 이 땅의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샘플입니다.

어딜 가나 제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셋째, 사명자가 되려면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초지일관(初志一貫)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돈이나 이성이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이 밑받침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불에 끓여 기체가 되어도, 물에 녹아도 액체가 되어도, 고체 덩어리로 있을 때도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사명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지요(마5:13). 가룟 유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작할 때 마음이 끝까지 그대로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날을 바라다보

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없다면 저는 진짜 이 길 안 갑니다.

만일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명에 부도를 내면 어찌 될까요? 회사가 부도를 내면, 개인이 부도를 내면 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명에 부도를 내도 옥에 갑니다. 감옥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감옥은 기간이 차면 나옵니다만, 지옥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오는 자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주의 종 길 아무나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 전도사만 사명자 일까요?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두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마28:19~20)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다만 역할이 각자 다를 뿐입니다. 주일 새벽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내를 서는 안내위원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야말로 사명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 수 년 간 성가대를 서는 분들, 허리가 굽었는데도 헌금위원을 하시는 권사님들, 어린 것을 소변까지 받아가며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 다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 의사, 약사, 변호사...,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서 봉사(奉仕)가 제일입니다. 내가 낮아서 남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사명자 중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에 부도내지 맙시다. 부도(不渡)란 아닐 부(不)에 건널 도(渡), 곧 건너서 안 되는 다리입니다. 왜냐? 그 다리는 지옥으로 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꿈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를 건지려 애썼지만 결국 못 건졌다고 합니다. 그날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사명에 부도낸 자에게 아량이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가치를 이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지점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시험을 이기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소화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환영해야만 한다. 그리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적과 능력이 따르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약1:13)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가 타락하도록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진단하신 것이다(창22:1).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시험에 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시험에 들어 주님을 배반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아무리 일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히10:26~29). 그러므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력을 일시에 무너뜨려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시험에 들지 않는 최상의 예방책은 바로 교회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배, 기도, 봉사 등 교회에서 모인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해 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수단이며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신앙논객 ::

시간이 필요하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프리미어 리거 박지성 선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공통점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처와 굳은살로 뒤덮인 못난 발을 신발 속에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발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온 고난과 훈련과 노력의 시간들을 대변해준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다.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25년에 가까운 기다림이 필요했고,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험악한 세월이 필요했다. 요셉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이루기까지는 노예생활과 감옥살이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경험이 필요했고, 모세가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천하의 운유한 리더가 되기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수십 년간 혈기를 빼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매사 분쟁을 일으키며 언제나 당을 짓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임을 알기에 미움과 분노를 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노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는다. 단지 화를 낸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에게 분노를 자아낸 상대방에 대한 복수나 처벌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오직 용서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다음에는 그 용서를 지속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시험에 들고 만다.

인내가 없이는 남을 용서할 수 없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일평생 죄짓지 않고 깨끗이 사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한 차원 높은, 오직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관심을 두신다.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눅11:4).

신학주 전도사

당신의 목적은?

송나라 범문공이 젊은 시절 한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제가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스승은 ‘너는 재상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범문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의원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의원은 천한 직업인지라 스승이 물었다. “아니, 재상을 바라는 자가 어찌 의원이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범문공은 “제가 재상이 되려는 것은 권력이 탐나서가 아니라 도탄 속에서 해매는 백성을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재상감이 아니다 하시니 의원이라도 되어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스승은 “네 정신만은 재상이 되고도 남겠다.”라고 격려했고, 범문공은 열심히 정진해 결국 명재상이 되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은 이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

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선한 목적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너스까지 챙겨주셨다.

당신에게 물겠다. 당신은 왜 돈 벌기를 원하는가? 왜 명예를, 권세를 얻고자 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독을 취한 것이다. 목적이 선해야 선한 결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일신의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구가 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론에 끝인한다’ 중에서



:: 소망의 언덕 ::

책에서 발견하는 지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의 생각을 책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책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노하우를 값없이 얻을 수 있다. 목사님은 책이란 친구를 통해 과거의 사람도, 성경의 인물도, 한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도 친구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의 종이 지식만을 탐닉하여 책에만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늘 책을 가까이하여 그 속에서 믿음의 선전들의 신앙과 한 발 앞선 깨달음을 습득해야만 한다.

책은 너무나 많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어느 책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많은 책 중에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신문이 있다. 신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 세계 예수 중심교회 성도들이 쓴 글을 문서선교팀에서 편집하고,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감수를 해주신다. 교회신문을 통해 교단 내 다른 목사님들의 신앙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앙의 도전을 받고 다시 장작불을 지피는데 도움이 된다. 봉우컬럼

을 통해 목사님의 지혜를 배운다. 또 설교요약은 차분한 문제 안에 복음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같은 설교를 듣지만 일목요연한 설교요약을 보면 다시 새로워져 말씀을 되새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외국인들은 한강이나 남산을 보며 서울의 도심 문화와 자연의 조화 앞에 놀라워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작 그것을 옆에 두고도 모르고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모를 수 있다. 우리 신문이 꼭 그렇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신문을 귀하게 여기고 꼭 읽자. 신문에 우리 교단의 깊은 신앙의 진수들이 담겨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인쇄가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으나 교회 홈페이지(www.jcc.tv)에 들어가면 쉽게 만날 수 있고, 곧 교회 문이 열리면 인쇄될 것이다.

목사님은 전 교역자들과 청년들에게 신문을 꼭 읽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청년부에서는 신문을 앱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매주 발행되는 교회신문만 읽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갈 수 있다.

이현승 목사

독한 시기를 버리고

초등학교 때, 새 학기가 되어 반장선거를 하면 저는 쟁쟁한 남자애들을 제치고 늘 반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썩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음에도 더 예뻐 보이는 친구를 시기하며 미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를 사랑해주던 친구들의 신뢰를 잃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학기 때는 회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과 회장을 뽑는 선거는 보통 인기투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반장을 하고 2학기 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학기 동안 친구들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기심과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기에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반장은 할 수 있었지만 회장은 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보다 나아 보이는 친구를 시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그 한 명으로 인한 시기심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읽고 나니 시기와 질투는 동경하는 마음의 못난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친구에게 답장

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나도 너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지요. 그 뒤로 그 친구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해지고 나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자양분 삼아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 자녀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값이 다르게 매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귀히 여기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본성을 거스르며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존재 값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치르는 희생이 클수록 존재 값은 높아지며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최고로 존귀케 하셨습니다(히12:2, 빌2:6~11).

우리 주변에는 유독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

이는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시기심을 느끼고, 비난하며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시기심에 갇혀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시기심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쓴 뿌리입니다. 시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시기심은 너무 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친구와 좋은 인연을 맺게 하시고 시기심을 가져가셨습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존재 값을 높여야 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라는 물음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라고 답하며 나를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값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가 중요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을 살아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박영신

봉사

초신자 시절, 대형 면허증이 있다는 이유로 운전 경험이 전혀 없던 내게 전도사님은 차량 봉사를 하라며 키를 넘겨주셨다. 전도사님의 크나큰 믿음과 신뢰에 감격하여 즉시 도로연수를 시작했었다.

그렇게 8년여 지속되던 차량 봉사는 장사를 핑계로 미련과 회한을 뒤로한 채 접었다. 이후 기도처 예배는 점점 소홀해졌고, 교우 관계도 소원해졌다. 기도의 부족으로 당연히 영혼이 메말라갔다. 나는 그 같증을 유튜브 예배로 해소하고자 했으나 마음 한편은 늘 비어있는 듯 허전하였다.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음으로 양으로 자원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러워 오매불망 차량운행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쉽게 올 것 같지 않았다.

소망하면 이뤄진다고 했던가. 지난달 전도사님이 다시 봉사를 권유하였고, 나는 흔쾌히 다시 봉사를 시작했다. 당연히 그 후론 기도처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었고, 꺼져가는 모닥불이 살아나듯 기쁨과 열렬하게 살 이유를 찾았으며 성취와 보람을 느껴 첫사랑이 다시 타오름을 체험한다.

오늘도 차 안은 교구 권속들이 자원으로 마련한 소박한 선물을 들고 시끌벅적 소란스럽다. 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기만 하다.

봉사는 주만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봉사를 다시 시작함으로 내 신앙이 깨어났고, 내 믿음에 다시 불이 붙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돈 벌어놓고 나중에 하지.’, ‘정년퇴직하고나 해야지.’ 이러다 내 꼴 난다. 신앙의 불이 가물가물해지고 결국 완전히 불이 꺼지고 만다. 불이 꺼지기 전에, 불씨라도 남아 있을 때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계 22:12).

추성숙 집사

믿음의 ‘인플루언서’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언택트(Untact · 비대면)의 전환으로 크나큰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한편으로는 변혁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뿐인가?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유난히도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그중 하나가 ‘인플루언서(Influencer)’이다. 영향력(Influence)이라는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 +er를 붙이면서 Influencer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독감 바이러스 중 이 말과 비슷하게 불리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플루엔자(Influenza)’이다. 누군가 이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그 주변에 전염되고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격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배우게 된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의식중에 영향을 받는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플루언서’와 ‘인플루엔자’가 있다. 성장기 때 만난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일상에서 접하는 책,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디어 등 참으로 다양하다.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인플루언서’로, 혹은 ‘인플루엔자’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인플루언서는 누구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를 다니는 부

모,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교회 목회자가 인플루언서일까? 아니다. 나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큰일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인플루언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성경적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추악한 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하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필자가 즐겨보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비글부부’라는 커플 유튜브, 크리스천 인플루언서가 있다. 이 부부는 지난해 6월, 둘째 아들을 심장마비로 천국에 보내야 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바시]란 강

연 프로에 나와서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내용 중, 공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 항상 어려운 이들을 늘 도우시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남긴 말이 기억에 뚜렷하다.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잘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남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인플루언서’라는 것이다. 그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 매년 사업과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의 큰 금액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는 일을 한다고 한다. 나 혼자 잘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살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자 성경이 가르치고자하는 최고의 신앙교육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말로만 가르치고 자신의 삶은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말 한마디, 행동하나, 태도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하길 소망한다.

Dr. 권정미 성도
jmgood77@gmail.com

